

박상영, 펜싱 남자 에페 '깜짝 금메달'

양궁 女 개인전서 리우올림픽 첫 남북대결 성사 김장미는 25m 권총 결선행 좌절 박태환은 자유형 100m에서도 예선 탈락 유도 이승수·박지윤도 조기 탈락

한국 남자 펜싱대표팀의 '막내' 박상영(21·한국체대)이 '대형사고'를 쳤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한국 펜싱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은 박상영이었다.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는 장혜진(29·LH)이 개인전 16강에 안착해 북한의 강은주(21)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2012 런던올림픽 사격 여자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장미(24·우리은행)는 결선에 오르지 못해 2연패가 좌절됐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7)은 자유형 400m와 200m에 이어 100m에서도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박상영은 10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베네룩스계 저임레(42·헝가리)에 15-14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남자 펜싱대표팀을 통틀어 가장 나이가 어린 박상영은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박상영은 10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남자 펜싱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헝가리의 게자 임레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고 환호하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 2개, 은 1개, 동 3개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강국의 위치에 올라선 한국 펜싱은 박상영의 금메달로 금맥을 이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남자 펜싱이 플리데, 사브르, 에페를 통틀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플리데의 김영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박상영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이상기, 2012년 런던올림픽의 정진선이 동메달을 딴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4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서의 48초91보다 0.53초 늦게 터치패드를 찍었다. 2년 전 뉴시우스 웨일스 챔피언십에서 수립한 48초42의 한국기록에도 크게 못 미쳤다.

지난 7일 자유형 400m, 8일 자유형 200m에 이어 자유형 100m에서도 예선 탈락한 박태환은 자유형 1500m만을 남겨뒀다.

안세현(21·SK탈레콤)은 수영 여자 접영 200m에서 준결승에 올랐으나 준결승 2조에서 2분08초69를 기록, 총 16명의 선수 중 13위에 머물러 8위까지 주어지는 결승행 티켓을 아쉽게 놓쳤다.

안세현과 함께 접영 200m에 나선 박진영(19·대전시실관리공단)은 예선 4조에서 2분09초99를 기록해 조 8위, 전체 21위에 머물러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남자 평영 200m에 출전한 최규웅(26·국군체육부대)은 예선 2조에서 2분13초36을 기록해 조 6위, 전체 31위에 그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유도에서는 남자 81kg급에 나선 이승수(26·국군체육부대)가 카리오카 아레나2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이바일로 이바노프(불가리아)에 절반패를 당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승수는 32강전에서 세계랭킹 24위 이인 커글란(호주)에 환관승을 거뒀으나 기세를 잊지 못하고 일찌감치 짐을 썼다.

여자 63kg급의 박지윤(24·경남도청)은 32강전에서 영국의 엘리스 슬레지거에게 절반패로 졌다.

역도 남자 69kg급에 출전한 원정식(26·고양시청)은 리우레트루 파발리온2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상 143kg, 용상 177kg, 합계 320kg을 기록, 9위에 그쳤다.

한편 이날 금메달 1개를 추가한 한국은 금 3개, 은 2개, 동 1개를 기록, 종합 7위를 달렸다.

미국이 금 9개, 은 8개, 동 9개로 종합 1위를 질주했고, 중국(금 8개·은 3개·동 6개)과 헝가리(금 4개·은 1개·동 1개)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김민근 기자

군산상고 야구, 봉황대기 3연승 내일 오전 인천과와 8강 진출전

군산상고가 제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김해고를 7대1로 누르고 좌측의 3연승을 기록하며 16강에 올랐다.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회에서 군산상고는 지난 9일 오후 6시부터 목동구장에서 김해고와 16강 진출전을 벌였다.

군산상고는 김영동 투수가 선발로 나서 5회 투아웃 상황까지 1실점만을 내주고 승리투수가 됐으며, 신재필 투수가 무실점으로 마무리해 완벽 계투를 이뤘다.

타석에서는 톱타자 성종훈의 2회 3루타를 비롯 2루타 4개 등 모두 9개의 안타와 볼넷 7개, 몸에 맞는 공 3개, 상대 투수 폭투 2개 등으로 1회 선취점에 이어 모두 7점을 합작했다.

군산상고는 11일 오전 9시 울곡고를 누르고 16강에 오른 인천고와 8강 진출전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군산상고는 이 대회 개막일인 지난 3일의 첫 경기(12시 인천구장에서 대전고를 7대5로 물리친데 이어 6일 오전 9시30분 목동구장에서 열린 강호 충암고와의 2차전 경기에서 팽팽한 투수전 끝에 7회말 1점을 결승점으로 승리를 차지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순창서 개최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테니스대회가 전국제일의 장류와 장수의 고향 순창에서 13일 시작으로 8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대통령기 테니스대회는 1975년 한국테니스발전을 위해 이름 그대로 국가직 차원에서 창설된 대회로 국내 테니스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단체전 경기로 모든 선수들의 선망이 되는 유서 깊은 대회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테니스협회가 주관한다.

순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28개팀 고등부 40개팀, 총 6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4단 1복식의 단체전 경기로 펼쳐진다.

경기가 열리는 순창군 테니스장은 공인경증을 받은 최신 시설로 하드코트 8면과 실내코트 8면으로 최상의 조건에 우수한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된다.

순창군은 주니어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경기장 정비를 완료하는 등 선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17일부터 고창서 유도 최강자 가린다

전국 유도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6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다.

고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유도회(회장 김진도)와 전라북도유도회(회장 권순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가 함께 열리며 본 경기는 19일과 20일에 진행된다.

이번 전국 유도대회는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생활체육 유도선수와 임원 등 전국에서 1500여명의 선수 및 임원, 학부모 등이 참가해 평소 구슬땀을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고창군은 유도종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직장여자유도부를 창단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는 매년 참가선수가 꾸준히 증가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도대회로 자리 잡아 유도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